

# KOREA IT TIMES

Korea's No.1 Information Technology Journal



## Nuclear Technology special

- Blogging for Freedom
- Incheon's Robot Land theme park
- How to find love online - our exclusive guide
- Academia: Open Cyber University

## How can Mergers and Acquisitions change the future?

Download our free mp3 podcast! See page 12 for details  
**English and Korean version**

U.S. \$9.00 / KOR. ₩8,500

05



ISSN 1739-2950

Meet Joel and find the coveted jewel. There are so many ways to define mergers and acquisitions(M&A), but in short, asking questions about M&A is like shopping for a diamond necklace.

조엘을 만나서 당신이 그토록 갈망하던 보석을 찾아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M&A를 정의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M&A(기업인수합병)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마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기 위해 찾아 다니는 일과 같다는 말이다.

What does Richard Gere do when the beautiful brunette in the red dress has nearly finished getting ready to go to the opera with him in the movie Pretty Woman? In a wonderful final touch, he takes out a diamond necklace and puts it on her neck.

영화 프리티우먼에서 빨간 드레스의 아름다운 여자가 그와 오페라에 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리처드 기어는 어떤 행동을 했었는가? 그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꺼내 그녀의 목에 걸어주면서 그녀를 완벽한 모습으로 만들어 주지 않았던가.

What should Korean companies do if they find themselves in the role of that brunette - gorgeous and ready, but still lacking that last "wow" factor?

한국 기업들은 이 영화에서 나오는 아름답고, 외출할 준비가 되어있는, 하지만 아직 탄성을 자아낼만한 요소가 부족한 그 여성과도 같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Korean companies, at this stage, can be compared to a modern-day

#### Key words

- covet: 몹시 탐내다, 갈망하다
- mergers and acquisitions (M&A): 기업 인수 합병
- in short: 한마디로 말하면, 요컨대
- Richard Gere: 리처드 기어, 미국 영화배우



Joel Peterson, CEO of Pintoresco Advisors

## Introducing Korean Businesses' Fairy Godmother

Mergers and Acquisitions could be key for Korea's financial future, says expert

Cinderella. They are desperate to attend a grand ball on Wall Street, but are still waiting for their Fairy Godmother to magic them up a coach and beautiful dress.

이와 같은 처지에 놓인 한국의 기업들은 마치 현대판 신데렐라와도 같다. 이들은 월스트리트에서 열리는 큰 무도회에 가기를 너무나도 갈망하지만, 자신에게 마술을 부려 아름다운 드레스와 마차를 마련해 줄 요정을 기다리고 있는 신데렐라와도 같은 처지인

것이다.

Newspaper headlines often tell us that Wall Street is planning a new ball to choose partners from Brazil, India, and other emerging countries - including Korea. Who can put the finishing touches on Korean companies to make them look outstanding at the ball?

월스트리트가 브라질과 인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여러 신흥국가들에서

### Joel Peterson, CEO of Pintoresco Advisors, defines M&A

Pintoresco 의 최고 경영자 조엘 피터슨이 이야기하는 기업인수합병

M&A stands for mergers and acquisitions, but means anything to do with complex business deals that include, for example: joint ventures, strategic partnerships, mergers, divestitures (the sale of all or part of a company), initial or secondary public or private offerings of equity for sale.

기업인수합병은 합병과 획득의 줄임말이지만 사실상 그 말 속에는 합작, 전략적 제휴, 합병, 자회사 매각(전체 또는 부분), 매각을 위한 최초 또는 2차 기업 공개 또는 사모방식 등의 복잡한 기업의 거래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M&A is usually used when a company is faced with the question of "buy vs. build". For example, if a company that is in the car manufacturing business wants to also get into the truck manufacturing business, it has to decide whether to "build" the truck manufacturing business from scratch by hiring knowledgeable employees and management, building its own factories, designing its own trucks from scratch, and so on.

기업인수합병은 한 회사가 "기존 기업을 인수할 것인가 아니면 신생 기업을 만들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직면하였을 때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자동차 제조업을 하는 회사가 트럭 제조업 분야에도 진출하고자 할 때,

이 회사는 트럭 제조에 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들을 고용하고, 공장을 짓고, 아무런 배경 없이 그들의 트럭을 디자인 하는 과정들을 통해 맨바닥에서 새롭게 트럭제조업을 일으킬지를 결정해야 한다.

Or, it can "buy" a truck manufacturing company that's already in business. It may buy 100% of such a company, under a 100% stake, create a joint venture, or a strategic partnership as a way of entering the truck manufacturing business.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트럭 제조업 회사를 "인수" 할 수 있다. 트럭 제조업에 진출하기 위해서 온전한 책임을 가지고 회사를 전부 사들이거나, 또는 합작을 하거나 전략적 제휴를 할 수도 있다.

Often, it is cheaper, less risky, and faster to enter a new business or a new market -especially a market in a new country - through M&A deals than it is to do so by building a new business from the bottom up.

기업인수를 통한 방법은 특히 신흥국의 시장에 진출할 경우, 바닥부터 일으키는 방법에 비해 비용도 적게 들고 덜 위험하며, 새로운 사업과 시장에 좀 더 빨리 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 Key words

- brunette: brunet의 여자형, 거무스름한 피부, 머리칼, 눈을 가진
- gorgeous: 호화스러운, 눈부신
- Fairy Godmother: 수호요정
- emerging: 최근에 생겨난
- Advisors 의 조엘 피터슨 사장을 만나보아라.
- Seek: 찾다. 모색하다, 추구하다, 얻으려고 하다

Existing businesses already have brands, products, customers, suppliers, skilled workers and knowledgeable management, as well as required licenses, reputations, and cash flow. Likewise, it may be easier, quicker, and more profitable to sell a business or part of a business than to shut it down and sell its assets one by one.

기존의 회사들은 이미 라이선스, 신용, 현금 자금뿐만 아니라 브랜드, 제품, 고객, 공급자, 숙련공, 지식 있는 경영진까지 갖추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볼 때, 회사 문을 닫고 자산을 하나씩 매각하는 것 보다는 회사의 일부 또는 전체를 매각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고 쉽고 이익이 많을 것이다.

#### Key words

- mergers and acquisitions: 합병과 획득
- divestiture: 자회사 매각, 기업 분할
- 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 공개
- from scratch: 스타트라인에서, 무에서
- and so on: 기타 등등
- in business: 사업에 종사하는
- from the bottom up: 처음부터, 당초부터 완전히
- shut down: 닫다, 폐점하다



은 이들 중에서 자신의 파트너를 고르기 위해서 새로운 무도회를 계획 중에 있다는 소식이 신문 헤드라인을 통해 간간이 들려온다. 그렇다면 한국의 기업들이 무도회에서 눈에 띄게 아름답도록 마무리 치장을 해줄 사람은 누구일까?

Is there a Fairy Godmother out there for Korean companies who want to build partnerships with Wall Street? If you are an answer seeker, meet Joel L.A. Peterson from Pintoresco Advisors, LLC.

월스트리트와 제휴하고자 하는 한국의 기업들을 위한 요정이 있을까? 만일 당신이 답을 구하고자 한다면, Pintoresco Advisors 의 조엘 피터슨 사장을 만나보아라.

Mergers and acquisitions has been a sensitive term for Korean companies because the companies that have high potential are the ones that seek M&A rather than those companies that fare well financially.

기업인수합병이라는 말은 한국 기업들에게 있어서 다소 민감한 용어였는데, 이는 재정적으로 훌륭한 기업들보다 높은 가능성을 지닌 기업들이 기업인수합병을 더욱 원하기 때문이다.

But the trend is changing. M&A has become the first and the most commonly accepted way to get into a global market that brings high value and money to companies in emerging economies.

그러나 이러한 흐름이 변화하고 있다. 새로운 경제 체계에서 기업인수합병은, 고부가 가치와 부를 가져다 주는 세계 시장으로 진출하는데 있어 기업들이 가장 흔하게 택하는 방법이 되었다.

Finding the right M&A deal and calculating the price of a M&A deal, is complex and takes special expertise and experience. Negotiating all the aspects of buying or selling a company, or creating a partnership between companies is very hard and few companies have employees with the necessary skills, expertise, or experi-



ence to successfully construct such deals.

올바른 기업인수합병 거래를 찾아내고 M&A 거래의 가격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한 문제이며 특별한 전문 기술과 경험이 필요하다. 한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것, 또는 회사 간의 제휴에 관해 협상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한 기술, 전문 지식 또는 경험을 지닌 직원을 가진 회사는 별로 없다.

But once the companies manage to sign a M&A agreement, the outcomes are usually unbelievably prosperous. 그러나 기업인수합병 계약을 성취하게 되면, 그로 인한 결과물은 대개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매우 좋다.

So what kind of companies have had successful cases so far overseas? Which status exactly should companies have when they consider M&A? 그렇다면 지금까지 어떤 종류의 해외 회사가 기업인수합병에 성공했으며 정확하게 어떤 상황에 있는 회사가 기업인수합병을 고려해야 하는가?

Navlink is an affiliate of AT&T, American telecommunications giants. Navlink provide managed hosting and system integration services for AT&T customers in Southern Europe, Middle

East, and Africa.

내비링크는 미국의 거대 정보통신회사인 AT&T의 계열사로 남유럽, 중동 및 아프리카 AT&T 고객들에게 1:1 토탈 서버관리 및 시스템통합 서비스를 공급한다.

The company did not have experienced senior people capable of approaching, engaging, and negotiating high-level, strategic deals with government-owned telecommunications companies, especially in the Middle East. It needed experienced, seasoned project management and M&A expertise to successfully create joint ventures (JV) or strategic part-

### Key words

- potential: 가능성, 잠재력
- fare: 지내다, 살아가다
- get into: 진출하다, 시작하다
- expertise: 전문적 지식, 기술
- prosperous: 순조로운, 유리한, 좋은
- so far: 지금까지, 여태껏
- affiliate: 계열회사, 자매회사
- managed hosting service: 1:1 토탈 서버관리 서비스

nership agreements and to implement strategic projects.

내비링크에는 특히 중동 지역에서 국유 정보통신회사에 접근하여 계약하거나 고위급 전략적 거래를 협상할 수 있는 경력 있는 선임자가 없었다. 회사는 합작이나 전략적 제휴 합의를 성사시키고 전략적 프로젝트를 이행할 경력자, 노련한 경영진, 그리고 기업인수합병에 관한 전문 지식이 필요했다.

Here they needed their Fairy Godmother, Pintoresco and its magic wand. As an example, Pintoresco provided Executive Managing Director-level services and approached Qatar Telecom's executives in for discussions regarding a JV or strategic partnership with Navlink/AT&T.

이와 같은 시점에서 내비링크는 요정, 즉, 핀토레스코의 요술 지팡이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 일례로 핀토레스코는 전무급 서비스를 제공하고 내비링크/AT&T와의 합작이나 전략적 제휴와 관한 논의를 하기 위해 카타르 텔레콤 중역들에게 접근했다.

Pintoresco successfully negotiated a partnering agreement between Qatar Telecom and Navlink to design, build and operate a state-of-the-art data hosting center - connected to AT&T's global network - to serve the needs of Qatar telecom's customers and AT&T's customers throughout the Gulf Region. Both countries gained a lot - high profits and added value.

핀토레스코사는 카타르 텔레콤과 내비링크 사이의 제휴계약에 성공하였으며 카타르 텔레콤 고객과 걸프 지역의 AT&T 고객들을 위한 AT&T의 글로벌 네트워크에 연결된 최첨단 데이터 호스팅 센터를 설계, 건설 및 운영하기로 했다. 양국은 이로서 높은 이익과 부가가치를 얻게 되었다.

Pintoresco delivered a diamond necklace to a company called ANDAMIRO, as well. ANDAMIRO, a leading Korean designer and manufacturer of arcade video games and electronic equipment for the casino and gaming

industry, sought help from Pintoresco Advisors in July 2007 to help it launch its latest product innovation.

핀토레스코사는 안다미로사에게도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안겨주었다.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과 카지노 및 게임 업계를 위한 전자장비를 설계하고 제작하는 한국의 선두 회사인 안다미로는 2007년 7월 최신 제품 혁신을 시작하기 위해 핀토레스코의 도움을 받고자 했다.

ANDAMIRO is best known for inventing the world's most popular and successful arcade game ever, *Dance Dance Revolution* (also known as *Pump it Up*).

안다미로는 지금까지도 전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고 성공적인 비디오 게임인 DDR을 발명한 것으로 유명하다.

ANDAMIRO is now unveiling its newest innovation, JamBeat, a unique handheld, wireless electronic "beat box" that puts much of the power of a recording studio literally into the hands of the average person and lets people make endless varieties of original Hip Hop music, do impromptu DJ sessions and wireless pick up jam sessions with up to 5 JamBeats.

안다미로는 이제 최신 기술혁신인 잼 비트를 선보일 것인데 잼 비트는 말 그대로 녹음실의 출력 대부분을 말 그대로 일반인의 손에 넘겨주어 그들이 하여금 오리지널 힙합 음악을 마음껏 변형하도록 해주고 즉석 DJ 세션과 최고 다섯 가지의 잼 비트로 무선 즉흥 잼 세션을 하도록 하는 독특한 포켓용 무선 전자 "비트박스"이다.

But what this company lacked was the expertise and networks needed to find strategic partners in the USA for JV, partnering, or licensing deals to be able to break into the U.S. market and launch their innovative new product.

그러나 이 회사는 미국 시장에 진출하여 혁신적인 신제품을 출시하기 위해서 필요한 합작, 제휴 또는 라이선스계약과 관련한 전략적 파트너를 찾을 기술과 네트워크가 부족하였다.

James Ko, the President of ANDAMIRO USA, stated, "We have teamed up with Pintoresco Advisors, based on their expertise and impressive track record to help us accelerate our entry into these two vast and important markets. Based on our past experience with new innovation launches, we calculate that the US market alone could be worth \$70 million to \$100 million, based on licensing deals alone."

제임스 고 안다미로 미국 법인 사장은 말했다. "우리는 핀토레스코사와 협력해왔는데 핀토레스코는 그들의 전문지식과 놀라운 업적을 토대로 우리가 거대하고 중요한 두 시장으로 진출에 박차를 가하도록 도울 것이다. 새로운 기술 혁신 착수에 대한 자사의 과거 경험을 토대로 우리는 미국 시장만 해도 라이선스 계약만으로 7천만 내지 1억 달러 가치가 있을 것으로 추산한다"

Currently, SK Telecom is at the stage where it is prepared to sign a contract with Pintoresco Advisors in May. With the help of a Fairy Godmother, SK will be able to be a part of the international club.

한편, 현재 SK 텔레콤은 5월에 핀토레스코사와 계약을 체결할 준비 중에 있다. 요정의 도움으로 SK는 인터내셔널 클럽 대열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What makes Pintoresco Advisors the

### Key words

- government-owned: 국유의, 정부 소유의
- seasoned: 길든, 노련한
- magic wand: 요술 지팡이
- state-of-the-art: 최첨단 기술을 사용한, 최고 기술 수준의
- added value: 부가가치
- as well: 게다가, 마찬가지로
- unveil: 정체를 밝히다, 밝히다
- impromptu: 즉석에서, 준비 없이
- break into: 침입하다



best Fairy Godmothers?  
그렇다면 핀토레스코는 무엇 때문에 최고의 실력을 지닌 요정이 된 것일까?

Says Peterson, "We are specialized investment bankers. We help to bring together two parties. The first is those who have capital to invest into a business, either through a partial investment or a full purchase. The second is those who have a business that is seeking capital, either partially or fully for sale. The difference is that we bring these two groups together through very complex business deals that fall into what is called M&A."

피터슨 사장은 말한다. "우리는 특수화된 증권 인수업자이다. 우리는 두 그룹의 사람들을 연결시켜준다. 첫 번째는 부분 투자를 통해서든 완전 인수를 통해서든 사업에 투자할 돈을 가진 사람들이다. 두 번째는 부분 매각이든 전부 매각이든 자본을 찾고 있는 회사를 가진 사람들이다. 특징은 기업인수합병이라고 하는 매우 힘든 거래를 통해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을 연결시킨다는 것이다."

Koreans refer to certain M&A groups as "hunters". As Peterson says, "advisors or agents assist companies searching for acquisition targets, identify and screen potential "target" companies."

한국 사람들은 기업인수합병을 하는 회사를 "헌터"라고 부른다. 피터슨 사장은 말한다. "합병 고문이나 중개인은 회사들이 인수 가능한 회사를 표적으로 삼고 가려내도록 돕는 일을 하는 것은 사실이다."

"This might be what people might refer to as 'hunting'. But it takes industry expertise, valuation capability, and broad and deep industry networking skills to be effective at this, since almost no company puts a 'for sale' sign on their company headquarters," he notes.

"이런 단계를 '사냥'이라고 칭할 수도 있다. 하지만 회사 앞에 '매매'라고 써붙일 회사는 거의 없는 만큼 이 일



Who will provide the magic touch for smaller Korean companies?

을 능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업계에 대한 전문 지식, 가치평가 능력 그리고 폭넓고 싶은 업계의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하다"고 그는 지적한다.

It is obvious that buying or selling a medium-sized or larger business requires the knowledge of many complex issues.

중대형 회사를 인수하거나 매각하는 것은 분명 많은 복잡한 문제들에 대한 지식을 요한다.

To name just a few of these issues: there are legal issues, tax and accounting, regulatory, operational, human resource, investor relations, marketing, integrations or spin off, financing, intellectual property, licenses and permit, IT, communications, systems integration and data management, real estate and property, contract enforcement and funds transfer, technology and process integration, logistics, supply chain and vendor, and customer service and customer account transfer issues.

And that is just to look at the tip of the iceberg.

몇가지만 말하자면 법적 문제, 세금, 회계 문제, 규제 문제, 경영 문제, 인적자원 문제, 투자관계 문제, 마케팅 문제, 통합이나 스핀오프 문제, 재정 문제, 지적 소유권 문제, 라이선스 문

제, IT, 통신, 시스템 통합과 데이터 관리 문제, 부동산 문제, 계약 이행 및 자금이전 문제, 기술 및 과정 통합 문제, 물류, 공급 체인과 판매업체 문제, 고객 서비스 및 고객 계약 이전 문제 등이 있다. 이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Specialized investment bankers like Pintoresco offer a full range of skills and expertise to conduct M&A and effectively advise and guide their client through all the complex issues.

### Key words

- team up with: ~와 협력하다
- track record: 업적, 실적
- based on: ~을 토대로
- sign a contract with: ~와 계약을 체결하다
- investment banker: 증권 인수업자
- bring together: 맺어주다, 불러모으다
-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 fall into: ~이 되다
- investment banker: 증권 인수업자
- bring together: 맺어주다, 불러모으다
- for sale: 팔려고 내놓은
- fall into: ~이 되다
- valuation: 가치평가

핀토레스코와 같은 전문적인 증권 인수업자는 M&A를 실행하기 위해 모든 기술과 지식을 제공하고 의뢰인에게 효과적으로 조언하고 이끌어 모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한다.

Peterson explains, "We are not simply 'agents' who 'hunt' for businesses to buy, just as a doctor is not simply a 'hunter' of diseases. Like a doctor, an M&A specialist is a highly-trained, intelligent, skilled, expert professional who helps to identify a companies' problems and assists people to find the best solution that fits peoples' needs and individual circumstances." 피터슨 사장은 "의사가 단순히 질병 '사냥꾼'이 아니듯이 우리도 인수할 회사를 '사냥'하는 단순히 '중개인'이 아니다. 의사처럼 M&A 전문가도 고도로 훈련받고 지적이고 숙련된 전문가로 회사들의 문제점들을 확인하도록 돕고 사람들을 도와 그들의 필요와 개인의 상황에 적합한 최상의 해결책을 찾는다"고 설명한다.

In order to find detailed information about how reorganizations can be non-taxable and to decipher the terminology of all that tax jargon, meet Joel and find the jewel that will make the company shine at the Wall Street ball.

재조직된 회사들이 세금을 안 낼수있는 자세한 방법과 세금 관련 전문용어 등에 관해 알고 싶으면 조엘을 만나서 그 회사가 보유하고있는 월스트리트 무도회용 보석을 발견하라.

### Key words

- human resource: 인적자원
- investor relations: 투자관계
- spin off: 스핀오프 (주식회사 조직의 재편성 방법으로 모회사에서 분리 독립한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
- intellectual property: 지적 소유권
- tip of the iceberg: 빙산의 일각
- full range of: 모든
- reorganization: 재편성, 개편,
- decipher: 확실하게 하다, 해독하다
- jargon: 전문어

**According to Peterson, there is such a thing as a tax-free M&A transaction, and anything free offers more of that precious wow factor.**

**피터슨 사장에 의하면 세금을 안내고 M&A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뭐든 공짜 라는것은 보석과도 같은 "WOW" 요인보다 더 기쁜소식이다.**

Joel Peterson of Pintoresco Advisors gives us his top tips on tax-free M&A transactions:

핀토레스코사의 조엘 피터슨 사장은 비과세 M&A 거래에 대해 그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한다.

For tax purposes, a reorganization is a transaction in which one corporation acquires the stock or asset, of another corporation. It is similar to taxable acquisitions except that in a reorganization the consideration used by the acquiring corporation is its own stock or the stock of its parent.

비과세를 위해서라면 재조직은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인수하는 거래이다. 이는 재조직에 있어서 인수하는 기업이 고려하는 것은 기업 자신의 주식이거나 모회사의 주식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과세 인수와 비슷하다.

Generally, transactions that meet the definition of a reorganization are not taxable. These are allowed because shareholders are not "cashing out," rather they are maintaining their same investment in the underlying assets, but in a different corporate form.

일반적으로 재조직의 정의에 부합하는 회사의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이러한 것이 허용되는 이유는, 주주들은 "현금으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인 형태로 기본 자산에 같은 투자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However, in many situations, going through a reorganization can be the next best thing to cashing out, but without the tax cost. For example, let us say company A started its own business and organized it as a corporation. Within a year, it has started to make a profit. A big company like Microsoft (MS) decides that they would like to acquire company A's business and

make the company an offer they can't refuse.

하지만 많은 상황에 있어서 재조직을 단행하는 것은 현금 지불에 대한 차선책이 될 수 있지만 세금 비용이 없다.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자신의 사업을 시작하여 그것을 법인으로 만들었다고 가정해 보자.

1년 이내에 그 회사는 이익을 내기 시작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대기업은 A회사의 사업을 인수하고 싶다고 결정하여 그 회사가 거절하지 못할 제의를 한다.

Company A is then merged into a subsidiary of MS, and turn in their old shares - to receive, in exchange, 1,000,000 shares in MS common stock. Even though owning MS stock is almost as good as owning cash, this transaction is not taxable. Company A will only be taxed if it sells the MS stock in the future.

그리고 A회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열사로 합병되어 그 회사의 오래된 주식을 주고 MS 보통주 100만주와 교환한다. MS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이 현금을 소유하는 것과 거의 같다고 할지라도 이 같은 거래는 과세 대상이 아니다. A회사는 장래에 MS 주식을 팔 경우에만 세금이 부과된다.

IT TIMES Chun Go-eun toclair@ittimes.co.kr

### Key words

- tip: 정보, 비법
- parent: 모회사
- cash out: 현금으로 지불하다
- underlying assets: 기본 자산
- next best: 차선의, 제 2위의
- make an offer: 제의하다